

고군산 관광벨트조성사업 변화 기틀 마련

정부·전북도·군산시,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 성공 추진 협약 체결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고군산군도가 군산시와 정부가 손을 잡고 추진하는 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새로운 변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공모 신청해 최종 선정된 온리원(Only One) 고군산(Go Gunsan)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앙정부, 전라북도, 군산시가 참여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온리원(Only One) 고군산(Go Gunsan)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오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18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국비 91억원, 지방비 91억원)이다.

먼저 올해는 국비 27억원을 확보해 장자도항 일원에 시급한 차도선 접안 시설 설치 공사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시는 금년 하반기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철저한 건설경기를 살리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관광벨트 조성 주요사업은 신시도항 및 주변 노후도로를 정비, 무녀도권은 어촌뉴딜300사업과 연계 고군산 투어 버스 환승장 및 주차장을 조성한 수산특화거리의 조성, 장자도는 고군산의 최서단 섬으로 인근 말도, 명도, 방축도와 4.5km 이내 지역으로 말도리 일원에 조성중인 고군산 명품 트레킹코스(L=14km)와 연계한 해상교통의 거점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는 고군산 해양관광이라는 관광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으로 향후 섬 특성을 살린 도서인프라를 구축하고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군산시민의 특화된 도서관광벨트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리원(Only One) 고군산(Go Gunsan)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앙정부, 전라북도, 군산시가 참여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했다.

또 "다양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실현되는 군산, 오고 싶은 군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익산=김정훈 기자

원광대 산림조경학과 Oh Nanana 팀 창의학교 최종 성과보고회 '대상'

새만금형 '미세먼지 저감 테스트베드' 주제발표 호평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농식품융합대학 산림조경학과 학생들이 구성된 'Oh Nanana' 팀이 최근 진행된 '2019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최종 성과보고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전북지역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을 펼치도록 지원하는 대학연계 프로젝트로써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발굴해낸 아이디어를 최종 성과보고회에서 발표하고, 우수 팀을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원광대 산림조경학과는 Oh Nanana 팀의 대상을 비롯해 업그레이트 팀이 우수상을 받고, 아리

야 팀이 장려상을 받은 가운데 이번 성과보고회는 전북 도내 6개 대학에서 15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32개 팀 중 자체 심사를 거쳐 올라온 12개 팀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새만금형 '미세먼지 저감 테스트베드'를 주제로 발표한 대상을 차지한 Oh Nanana 팀은 새만금 관공래지 1지구에서 진행되는 2023 세계캠버리 대회 이후의 계획이 아쉽다는 지역적 문제와 미세먼지라는 사회적 문제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저감 숲과 연구 클러스터'를 '테스트베드'로 조성하는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기대효과를 내세워 호평을 받았다. /익산=장인천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부적절한 발언 사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감수성 부족한 탓" 소회 밝힘

정헌율 익산시장은 27일 오전 11시경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한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여 사과를 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정 시장은 "그동안 다문화가족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탓에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깊은 소회를 말했다.

정 시장은 "향후에 다문화 가족이 이러한 유사사태를 겪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다문화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고 또한 각종 다문화가족협회 회원 및 가족들에서 직접 방문, 부적절하게 발언한 것에 대한 깊은 사과를 직접 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정 시장은 "당분간 불필요한 대외활동과 SNS 등을 자제하고 통찰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다문화가족들이 요구한 다문화 인권교육도 전문가를 초청해 적극적으로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청 공무원들도 유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5차례의 인권교육을 진행해 전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다문화가족과의 소통을 강화해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이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또 익산시의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의 오해에 대해서도 시의회와 시민단체에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정 시장은 "지난 13일 시정질문 과정에서 시의원들도 같은 책임을 공감하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표현하면서 시민단체를 비유한 것을 부적절했다"면서 "시민단체를 폄하하는 뜻으로 들렸다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청 앞 집회에 나선 주부 모임에 대해서도 일부 오해가 있어 만나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아무 조건 없이 만나 대화하고 시의 갈등요인은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발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통



정헌율 익산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한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여 사과를 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렬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자숙의 시간을 가질 계획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정헌율 시장은 지난 5월 다문화가족 행사 축하 과정에서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잡종강세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후 정 시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다문화가족 등의 비난은 계속돼 왔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해경, 안전사고 예방 계획 수립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가 매년 6월에서 10월 중에 발생하는 태풍

내습기를 맞아 각종 해양사고와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27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여름철 태풍 내습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 내습대비 해양사고 대비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해경은 최근 군산시 등 14개 유관기관 및 단체와 서면회의를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태풍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태풍 내습 시 강풍과 해일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경비함정과 다중이용선박(여객선, 유조선, 낚시배 등), 소형어선, 공사선박 등 고위험선박의 피항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좁은 항내에서의 선박 간 충돌로 인한 파손·침몰 등에 대비해 방현물 보강과 소형선박은 육상으로 양륙조치 예정이다. 또 조업선과 항해 선박을 대상으로 태풍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 조기 대피를 유도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지역구조본부를 운영하고 3천톤급 이상 경비구난함과 항공대, 해경구조대의 긴급 출동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가즈아 청춘'

마당극·변사극·버스킹공연·체합 등 문화행사 열려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에 조성된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기획행사 '가즈아 청춘'이 28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문화예술의 거리에 익산아트센터와 근대역사관, 청년문화소통공간(정승) 등 거점 공간이 조성되며 달린 거리의 모습과 다양한 활동으로 청춘들을 유입해 더욱 활발해진 거리 분위기를 선보이고자 마련됐다.

익산아트센터에서는 퍼포먼스와 근대의상체험, 버스킹 공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펼쳐지며 근대역사관

마당에는 특별 무대가 설치돼 포랑광대의 시대풍자 마당극과 추억의 무성영화 변사극, 청소년 댄스 공연이 개최된다. 근대역사관 2층 전시관에선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하는 포스터 전시회도 열린다.

청년들의 문화소통공간 '정승'에서는 청년파티 위로의 달밤이 진행되는 다. 청년 아트마켓에서는 핸드메이드 상품과 의류, 먹거리 등이 판매되고 2층 야외공간에서는 원광대 중앙동아리에서 청년 취미유형회와 달밤과 어울리는 재즈 공연 'Moon&Jazz 콘서트'가 진행된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 주얼리 수출 기업 지원방안 논의

익산 주얼리 수출·유턴기업들의 금융·마케팅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27일 익산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익산 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익산시 남산면 소재)에서 수출활력 촉진단 2.0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익산시 등 3개 관계부처와 한국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수

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관련 10개 유관기관, (주)엔트라 주얼리, (주)데코산업, 한국주얼리협회 등 13개의 익산 주얼리 수출 기업과 유턴기업 대표가 참석해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익산개발금융수출협동조합 이병훈 대표, (주)데코산업 이관영 대표 등 익산 수출기업 대표는 FTA 규정 교육, 수출입 자금 대출 지원 자격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